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한생각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

15면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일어나더니만 "사람의 코는 내리 뚫렸는데 왜 소의 코는 치켜 뚫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는 치켜 뚫려 있기에 빗물이 전부 들어가서 코가 막혔다 이겁니다. 그 중간을 내가 빼냈으니 얘인데, 그때 다른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깔깔대고 웃으니까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뛰어 올라가서 스님들한테 얘기를 가지고는 법상을 탁 차려 뒀습니다. 그래 앉혀 놓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코는 내리 뚫려서 비가 안들어 가고 먼지도 안들어 가서 막히질 않는데 소 코구멍은 막혔으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 줄 아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쓰더라 이 소립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죠 뭐, 그렇게 설법을 했는데 알아야, 벽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지요, 어찌면들 그러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발견되지 않고는 대답을 못하죠. 이런 말을 해도 착착이 저런 말을 해도 착착 갖다 붙이는 대로인

**삼천대천세계를
씨앗 하나에 넣어도
큰 그릇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아야**

데 그걸 모르면 말입니다!
(신도: 보았다고 하는 그 말에 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에 보았다고 말을 하면 본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받이지 못하고 하기도 다들 비가 없어서 봤다 안봤다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집착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야 해요. 대신 내가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아, 당산만이 알 수 있고, 당산만이 당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안보고는 내가 알아서 다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믿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 생각이 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기에 그 진리의 진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아무리 봐도 다 보지 못해요. 다 보기는 커녕 오히려 산란심만 일으키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듣고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제일이다 해도 한테 모아서 한 생각이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결정을 짓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팔이 이렇다, 다리가 이렇다, 눈이 이렇다, 귀가 이렇다, 이런 말할 것 없는 대답이라야 된다고 이 소립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밝이나 낮이나 다니다 보니까 밤도 밝이 아니고 낮도 낮이 아니더라고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다 라는 뜻은 전부 공해버렸는데 밝이 아니다 낮이다. 낮이 아니다 밝이다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카부터 얘기한 게 다 가버리고 없듯이, 한 사자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자는 사자가 없고, 가도 가는 사자가 없고, 와도 오는 사자가 없고, 봐도 본 사자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자가 없다 이 소립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라도 손바닥만한 나라가 반동강이로 잡혔을 뿐 아니라 전지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며, 사글세 방에 세들어 가지고는 시달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나 어려서만 해도 너무 비참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반쪽이 다 달아나간 걸 앞에만 걸쳐 신고 다닌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뭘 먹고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좋은 것을 먹고 풍족하게 잘 살아서인지 귀한 줄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다 내다버리고 그럼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고 흐르는 물을 보셨죠? 또는 물이 열기도 하고, 파도 치기도 하며, 잔잔하기도 하고, 온풍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이 사계절을 다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속연하게 잔잔해집니다. 반면 파도 치는 걸 보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요, 가을에 낙엽이 저서 똑똑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퍼지고 날이 추워도 아주 구슬퍼지죠. 요렇게 간사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간사한 게 아니라 철칙이란 말입니다. 저 나무들이 볼 때는 모두가 나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살라 그러면 내같이 살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좇아가다 보면 안되죠. 그래서 그게 좋으면 그것대로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 게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냐? 그 눈 가리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이두질 않았어요. 담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실안의 눈으로 봐야만 전체를 보셨죠.

그런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걸 보기는 하나 듣지 못하면 또 안되죠? 만약에 귀머거리가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텔레비전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그림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면 그런 격인데, 그림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리진 하나 보지질 않으면 이 또한 안되죠.

그래서 바로 천안통·천이통 이렇게 말할 것이지요.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만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소에게 주면 소가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거죠. 소 마음을 내 마음 속에다 넣으면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험



그림·최주현

이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절로 내리 저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보이는 것만 그러하면 보이지 않은 중생 마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아귀 축생도 그 그릇대로 맞추어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 마음 이 그 중생 마음 속에 드시니 마음이 그냥 밝아지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차디찬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대로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는 반면 저항력을 느낄때까 한물에다 찬물을 부어서 뜨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통 그것을 다 스리면서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점점 녹아버리는 것이죠. 맡겨 놓는 자리는 속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대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되놓는다면 그게 다 무너지면서 혼연히 녹아진다는 이겁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모한지.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토요일이 됐고 일요일이 되면,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좀 늦게 지도 편향' 다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폭 자버려

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업보에서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때리면 아주 고통스럽겠지요. 물질이 가진 것은 다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알잡아 보지 말고 저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내 가르침 아님이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그대로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하고, 내가 조금 밀지더라도 남을 이익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그대로 부처가 될 것 아니겠소.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여차피 죽을 거라면 아예 살아서 죽으라고요. 살아서 죽지 않으면 열반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이거든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 아닌 그 속의 이름... 그런데

**나쁜건 나쁜대로 하지 말고
좋은건 좋은것 대로 하며
밀지더라도 남이익되게 하고
폭넓게 마음쓰면 그대로 부처**

머더나 부처라는 소리, 보살이라는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신도: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은 자가 3일이 됐고 본 자가 3일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 선지식 같으면 벌써 죽비가 들어 갔을 겁니다.
(신도: 저는 맛을 각오를 했습니다. 좀 때려 주십시오. 최근에 우주인과 만난 독일 농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지구의 인공 조상은 우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초부터 인간의 씨로 만들어졌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진화론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멸망 운운하는 종교도 있고 하니 큰스님께서 지구의 생성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봐요. 풀 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고, 물·

튼 여러분이 몰라서 대답 안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 온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잡순 바가 없고 생각한 예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체 만물, 만생, 무정물, 생각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보이는 거든 안보이는 거든 전부 집어 먹었으면 토할 줄을 알아야지 집어 먹기만 하고 토할 줄 모르면 죽어요. 숨을 들이쉬고선 내릴 수 없으면 죽지요.
(신도: 그걸 도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과학이 無 발견할 수 있을지오.
문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 마는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보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 가서 이제는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질량이 거의 없고 수명이 극히 짧은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유의 세계에 공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를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지오.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음 공부 를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만 가르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들어야 전체 알아 주인공 죽는법 없으니 거기 놓고 말겨야

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의 차원이 개구리 마음이라면 내가 개구리가 돼줘야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라 하면 내가 돼지의 마음 그릇하고 똑같이 되어야만 돼지하고 한마음이 될 거라 이겁니다. 내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물과 한마음이 되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마음 한마음이 아니라 사람 뿐만이 아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태양하고도 그렇고 금성이나 수성이나 태양, 달, 이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고, 무정물 또는 식물 할 것 없이 일체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삼십사불'이라고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마음이 돼서 그 그릇에 딱 맞추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넘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크지도 않더라. 삼천대천세계를 씨앗 하나에 넣어도 맞고 큰 그릇에 넣어도 맞고, 그러니까 깨내도 졸지 않고 넣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깨내도 졸지도 않는 것이요, 그릇이 비지도 않는 것이요, 또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드러지지도 않아요 이 소립니다. 내가 소의 차원하고 똑같이야만이 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만나면

גע게 할 수도 없고 차게 할 수도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어서 마음대로 차원에 알맞게 들고 나니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이 아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늦도록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안 좋아할테요. 또 여자들도 남편과 애들 밤도 안 해주고 저녁 늦도록 있다가 들어가면 식구들이 좋아했습니까? 양쪽이 다 좋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건 악업이지 선업이 못돼요. 남의 마음을 그렇게 언짢고 괴롭게 만들어주고 그게 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 하고 자기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냥 저절로 선지식이요, 그대로 흰색이 될 것이고, 그대로 중용을 하고 죽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합쳐서 요리를 하니까 이 속에 들은 의식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마음도 다 자동적으로 조율이 돼서 한마음으로 지배인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주장자 아닌 주장자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몸 속의 의식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잘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등 그냥 매사 그렇게

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고 듣는 걸로 속지 말고 안에서 그 능력이 나와서는 화나게 하고 또 가계 하고 오게 하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 하고 자기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냥 저절로 선지식이요, 그대로 흰색이 될 것이고, 그대로 중용을 하고 죽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합쳐서 요리를 하니까 이 속에 들은 의식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마음도 다 자동적으로 조율이 돼서 한마음으로 지배인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주장자 아닌 주장자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몸 속의 의식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잘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등 그냥 매사 그렇게

불·흙·바람만 있어도 불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안 그렇까요? 우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다 바로 우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진땀을 안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 땀 나서 찾지 말고 '최초에 나온 것은 어떤 놈이든 지금 앞으로 미래에 갈 놈이 어떤 놈인지' 그것을 잘 보라구요.
(신도: 큰스님의 말씀을 제가 다 먹었다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처사님이 공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뱀을 것은 뭐 있냐요? 먹었다면 먹은 걸 좀 내보 보세요.
(신도: 내놓으시려면 전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도 옳아요. 옳고 말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을테고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할 수도 있고, 하여

협 찬 한마음